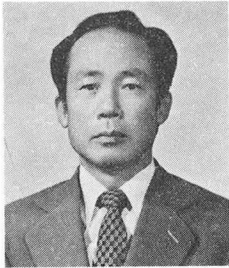


# 오제스키병의 만연을 막기 위하여



박 응 복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돈가의 하락시세가 계속되어 양돈농가들에게는 우울한 세모가 되었는데, 이에 덧붙여 최근에는 오제스키병의 발생농장이 확산되어 오제스키병과 대결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형세가 되었다.

지난해 7월 경남 양산군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확인된 후로, 양산군의 다른 농장과 경기도내에서도 발생농장이 검출되어 이 질병의 박멸이 어렵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다.

## 1. 병명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가성광견병, 유럽과 일본에서는 오제스키병이라고 부르고 있다. 필자는 이 질병이 광견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돈육 소비자들의 오해의 소지를 염려하여 오제스키병이란 병명을 쓰는 바이다.

## 2. 오제스키병의 특성과 면역

돈군에서 이 질병이 전파되는 것은 호흡기감염이 주가 된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에 튀는 콧물이나 침을 통하여 전파되는 비말(飛沫)감염이다.

돼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견디게 되면 1주째부터 항체가 생겨 감염된 지 4~5주에 항체가는 최고에 달하여 거의 일생동안 항체가 지속된다.

오제스키병의 특징은 항체가 있으면서 바이러스가 몸안에 존재하는 점이다. 즉, 바이러스는 돼지의 신경조직에 지속적으로 감염해 있어(돼지의 일생동안) 이동, 과밀사육 기후의 급변, 병에 걸리는 등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재발병하여 바이러스를 배설한다.

모든이 감염해 있으면 여기서 분만된 새끼는 초유를 통하여 항체를 받아서 3~14주령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15주령 이상의 자돈에서 오제

스키병 항체가 증명되면 감염이 일어난 것을 뜻한다.

농장에서 처음으로 오제스키병이 발생하면 신생자돈에서 떨림, 경련, 운동실조, 포유불능, 사지마비 등의 신경증상이 나타나서 3일 이내에 모두 폐사한다. 이럴 경우에 돼지콜레라가 아닌 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지만,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농장에서 포유자돈에 신경증상이 일어나면 첫째로 오제스키병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임신 모돈은 유산이 일어나서 큰 손해를 입는다. 3~4주령의 자돈에서는 신경증상이외에 콧물, 기침 등의 호흡기증상을 보이고 발증경과가 길고 40~60%의 폐사율을 나타낸다. 3개월 이상의 돼지는 대다수가 감염은 되어도 발병율과 폐사율은 낮고 개체차나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보통 한 군에서는 일부의 돼지만 발열, 원기소침, 기침, 콧물, 변비 또는 구토증상을 보이고 2주만에 종식된다.

오제스키병에 오염된 농장은 뚜렷한 병증이 없어 겉으로는 큰 피해를 느끼지 않지만, 사육 성적과 번식성적이 저조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이 약화되어 흉막폐염 같은 다른 질병에 의한 폐사 예가 늘어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산성의 유지는 불가능하게 된다.

### 3. 각 양돈장의 방제 대책

국내에서 오제스키병의 만연은 초기단계라고 판단되어 정책적으로는 더 이상의 질병 확산을 막고 나아가서는 박멸하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첫째는 오제스키병에 오염된 농장과 비감염 농장이 구분되어야 한다. 각 양돈농가는 병의 증세를 보고 발병을 알아내는 것보다는 혈액을 채취하여 오제스키병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제스키병은 돼지콜레라와는 달리 항체가 있으면 바로 감염해 있는 것을 증

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돈장의 돼지를 다 검사할 필요는 없고 번식돈을 대상으로 하여 그중 10%를 골라서 채혈한다. 특히, 분만전후의 모돈과 고산차 모돈을 먼저 검사대상으로 한다. 검사횟수는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한다.

현재 가축위생연구소나 각 도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양돈장에 나가 채혈을 실시하고 있지만, 각 농가는 능동적으로 검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 주도의 방역시책에 젖어 있어 전염병 방제의 책임을 행정기관에 돌리고 있다. 영국은 양돈위생협회(Pig Health Control Association)라는 생산자단체가 자주적으로 오제스키병 비감염농장을 증명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이 질병의 방제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일차적으로 항체검사에 의하여 오제스키병 비감염농장으로 밝혀진 농장은 돼지의 도입에 심분 유의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혈청검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대규모 양돈장에서 항체양성돈이 검출되지 않아 이런 양돈장부터의 돼지 도입은 안전하다고 본다.

불행히도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농장은 발병돈은 즉각 살처분 해야 하고 병증이 없는 항체양성돈은 격리 수용하여 출하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특별한 출하도축장의 지정이 요망된다. 특히, 종돈장은 6개월에 한번씩 번식돈의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비감염상태를 증명할 책무가 있다.

앞으로는 오제스키병이 없는 농장만이 종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고, 양돈가로서의 자부심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오제스키병 비감염상태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혈청검사와 아울러 돼지의 도입과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원칙적인 위생관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와같은 하는 것은 다른 전염병의 침입 방지도 해결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